

# 성장주와 가치주 두토끼 '배당성장주 펀드' 뜬다

배당축소에 성장-배당주 양극화 성장 비중높인 배당성장주 주목

전문가 "배당주에 관심 돌 시기 호실적 기대 고배당 업종 주목"

한동안 성장주 쏠림현상으로 외면받던 배당주가 힘을 받을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최근 상대적으로 성장주를 많이 편입한 '배당성장주 펀드'가 주목받는 이유다. 배당성장주펀드는 배당주와 성장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펀드다.

1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설정액 10억원 이상인 국내 267개 배당주펀드에서 연 초 이후 2조3519억원의 투자금이 유출됐다. 최근 3개월 동안 1조4388억원, 한 달 동안 5659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낮은 수익률과 중간 배당을 해왔던 상장사의 '포기 선언'이 부진의 이유로 꼽힌다. 배당주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최근 6개월 20.86%, 3개월 8.44%다. 같은 기간 각각 13.86%, 37.05%에 달하

〈수익률 상위 주요 배당주 펀드들의 지난 7월 기준 편입 종목. (괄호 안은 편입 비중)〉

	1	2	3	4	5
우리중소형 고배당 펀드	카카오(5.16%)	네이버(5.04%)	메드팩토(10.14%)	동진세미켐(3.21%)	삼성SDI(2.98%)
NH-Amundi4차산업혁명 연금증권전환형 펀드	삼성전자(23.32%)	SK하이닉스(5.81%)	LG화학(3.96%)	삼성바이오로직스(3.74%)	네이버(3.67%)
KB중소형 고배당 목표전환 펀드	삼성전자(10.33%)	삼성전자우(5.76%)	에코마케팅(3.92%)	SKC (3.78%)	LG화학(2.95%)
한국밸류 10년투자배당 펀드	포스코인터내셔널(5.96%)	한전KPS(5.55%)	두산 (5.53%)	동서 (4.38%)	한화 (3.89%)

는 증시 상승률을 본 투자자들의 성에 찰리 없다. 10% 수준인 국내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에도 한참 못 미친다.

여기에 기업들의 중간 배당금도 대폭 줄었다. 에스오일과 SK이노베이션 등 고배당주로 대표되는 정유 기업들이 대규모 적자를 낸 것이 결정타로 작용했다. 경영 악화와 사업의 불확실성 확대로 올해 국내 증시 상장사의 6월 중간 배당금은 2조9200억원으로 지난해(3조7100억원)에 보다 21%가량 감소했다.

그래도 일부 배당주 펀드는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가장 좋은 성적표를 받은 우리중소형고배당펀드의 경우 최근 3개월간 34.99%의 수익을 냈다. NH-Amundi(Amundi) 4차산업혁명 연금증

권전환형 펀드(32.13%), IBK포춘중국고배당펀드(23.77%), KB중소형 고배당 목표전환펀드(18.86%), 한국밸류10년투자퇴직연금배당펀드(17.65%)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 경쟁력이 높은 성장주 비중을 높인 것이 비결이다. 전통적인 고배당주로 꼽히는 가치주에만 집중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최근 수익률 1위를 기록한 우리중소형고배당펀드는 지난 2분기 말 기준으로 카카오(3.00%)와 네이버(2.88%), 삼성바이오로직스(2.78%) 등을 편입하고 있다.

인택트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비대면 관련주와 바이오 등 성장주들로 빠르게 포트폴리오 조정이 나섰다. 해당 상품

을 운용한 노기호 펀드매니저는 "과거와 같은 배당주 운용론 배당성향이 유지되더라도 과거와 같은 수익을 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며 "배당 수익에만 집중하지 않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혜주와 성장주를 함께 담았다"고 설명했다.

NH-Amundi 4차산업혁명 연금증권전환형 펀드 역시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차세대 기술 관련 기업을 주로 담았다. 삼성전자(23.22%), SK하이닉스(5.81%), LG화학(4%), 삼성바이오로직스(3.74%), 네이버(3.67%) 등으로 구성된다.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주 펀드 중에서도 비교적 성장주 비중

이 높은 펀드를 운용하는 미래에셋, 한국밸류, 마이다스와 중소형주 비중이 높은 펀드를 운용하는 브이아이 정도가 시장 대비 양호한 성과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배당주에 관심을 두어야 할 시기라고 조언한다. 지수 조정 시기와 시장 변동성 상승 시기에 배당의 하락 방어 현상이 발생했던 역사적 선례 때문이다. 초저금리 국면이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역시 배당주의 중장기 흐름에 힘을 실고 있다.

김재은 연구원은 "하반기 실적 증가 모멘텀을 지녔고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개선)으로 하반기 실적 가시성이 높은 고배당 업종에 주목하라"고 했다. 그는 배당성향이 낮아 실적에 따라 배당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업종으로 자동차, 증권, 반도체, 음식료를 꼽았다.

이정빈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주 타이밍 전략을 쓸 적기"라며 "배당 시즌이 다가오며 유동성 증가율이 감소할 때 가치주 로테이션을 노려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송태화기자 alvin@metroseoul.co.kr

## 니콜라 '사기說'에 조사착수... 주가 롤러코스터

힌덴버그 "니콜라는 사기 업체" 장중 주가 10% 폭락 후 10% 폭등 美 SEC 수사 보도에 상승분 반납

'제2의 테슬라'로 주목받아온 미국 수소전기차 업체 '니콜라'의 주가가 요동치고 있다. 미국의 공매도(주가 하락 시 이익이 발생하는 투자 방식) 업체 힌덴버그 리서치가 '니콜라는 사기 업체'라는 보고서를 내면서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다. 미 증권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 주장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14일(현지시간) 니콜라는 힌덴버그 리서치 보고서의 영향으로 장중 10% 폭락했다가 니콜라의 적극적인 해명으로 11.4% 상승 마감했다. 이날 하루동안 장중 최저점과 최고점은 23.43% 차이

다. 주주들은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장 마감 후 또다시 니콜라에 악재가 닥쳤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니콜라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나오면서다. 시간외 거래에서 한때 11.7% 하락하면서 정규장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힌덴버그 리서치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니콜라는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트레버 밀턴의 수습까지 거칠 것임을 기반으로 세워진 사기 업체라는 주장의 보고서를 냈다.

힌덴버그는 당시 보고서에서 밀턴이 적잖은 거짓말로 대형 자동차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왔음을 보여줄 충분한 증거를 모았으며 "상장 기업에서 이 정도 수준의 속임수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니콜라는 자사 주식을 공

매도한 힌덴버그 측이 시세조종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힌덴버그는 니콜라가 자신들의 문제 제기에도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거듭 반박하는 상황이다.

니콜라는 14일 힌덴버그 리서치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본격적으로 반박을 시도하는 성명을 냈다.

니콜라는 트럭을 언덕에서 밀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니콜라 원은) 실제 전시장에 전시돼 있고, 기어박스는 설치 전 기능 테스트를 거쳤으며 배터리도 작동했다"며 "인버터와 동력 모터 역시 모두 작동했다"고 했다.

또 트럭이 움직이는 동영상에 '자체 추진 중'이나 '동력전달장치 작동 중'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힌덴버그의 설립자인 네

이션 앤더슨은 블룸버그통신에 보낸 이메일에서 "자세한 반응은 추후 공식 자료로 낼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공방전이 길어지면서 니콜라 주가는 연일 출렁이고 있다.

니콜라가 미국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와 픽업트럭 생산을 위해 전략적 제휴를 맺은 지난 8일 니콜라 주가는 주당 50.05달러였으나 힌덴버그 리서치 보고서 파문으로 11일에는 32.13달러로 35.8%가량 추락했다.

한편 SEC의 이번 조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양측은 조사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니콜라는 "이번 문제에 대한 SEC의 조사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고 힌덴버그도 "당국이 조사에 나서 고무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한국투자증권

### 애플·넷플릭스 투자 Z세대플러스랩 출시

한국투자증권은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 트렌드를 대변할 수 있는 애플, 넷플릭스 등에 투자하는 '한국투자Z세대플러스랩'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상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는 세대가 주로 소비하는 아이템에 주목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중장기 기술 패러다임을 주도하면서 업종 내 높은 브랜드 가치를 지닌 생활 밀착형 기업을 중심으로 종목을 선별한다.

종목당 20% 비중으로 일주일간 2회 분할 매수하는 것이 핵심 운용전략이다. 고객이 지정한 목표수익률 달성 시 포트폴리오 비중을 30% 이내로 축소해 수익과 리스크를 관리한다.

이준재 투자상품본부장은 "자기만족을 위한 소비문화가 확산되고 소비자가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시기"라며 "Z세대가 글로벌 소비 시장을 주도하는 변화에 주목하자"고 말했다.

최소 가입금액은 3000만원이며, 은행외화예금 송금을 통한 미국 달러(USD) 입금도 가능하다. 가입은 한국투자증권 전 영업점을 통해 할 수 있다.

/송태화 기자

## 정 2-A5BL 품질우수 통지서



요진건설산업, 아산탕정 5공구 'LH 품질우수통지서'

요진건설산업이 시공한 '아산탕정 2-A5BL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현장이 품질 우수 현장으로 선정돼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품질우수통지서를 수여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품질우수통지서는 요진건설산업이 안전관리 및 공기단축 노력, 품질개선 등 요진건설산업의 건축 시공 품질을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진건설산업과 LH 관계자들이 아산탕정 5공구 품질우수 통지서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요진건설산업

## 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 덕분에' IRP 이벤트

신한금융투자가 개인형 퇴직연금(IRP) 신규 및 기존 고객에게 가입요건별 상품을 증명하는 '퇴직연금 덕분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신한금융투자 기존 거래고객·신규고객 모두 참여 가능하며 IRP 신규계좌 개설 후 10만원만 넣어도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잔을 증정한다. 이벤트 기간 중 DC·IRP 실적배당형 상품 50만원 이상 매수한 고객 중 선착순 100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증정하며, 이벤트 기간 중 실적배당형 상품을 매수한 고객 중 상위 10명에게 신세계 상품권을 증정한다.

신한금융투자 개인형 퇴직연금(IRP)



P)은 복잡한 증빙서류 없이 신한 알파 앱으로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이벤트 페이지 내에 이해하기 쉽게 IRP 관련 정보 영상을 게재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신한금융투자 앱 알파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